

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분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솔이*, 박성택**, 김영기*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Samsung - Apple Patent War Case Analysis: Focus on the Strategy to Deal with Patent Litigation

Sol Yi Kim*, Seong Taek Park**, Young Ki Kim*

Dept. of M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SOM**

요약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선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특허분쟁, 스마트폰, 삼성, 애플, 사례분석

Abstract In case that they do not have counterstrategies ready for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s or would fall behind in the market.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counterstrategies,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Thus, this study examined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drawn from cases of smartphone patent disputes and preceding researches,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patent experts and company executives to grasp their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related to the smartphone field. As for analysis tool, the Delphi method is selected that is usually used for analyzing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expert opinions. As a result of interviewing patent experts, effective countermeasures turned out to be cross licensing, counter-suit, and patent invalidation suit, in order, and as a result of surveys with company executives, they turned out to be patent invalidation suit, counter-suit, cross licensing, suit through solidarity, and loyalty agreement, in ord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for smartphon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ICT companies to establish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Key Words : Patent War, Smartphone, Samsung, Apple, Case Analysis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25 December 2014, Revised 3 February 2015

Accepted 20 March 2015

Corresponding Author: Young Ki Kim

(Chungbuk NationalUniversity)

Email: ykkim@c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들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기술과 제품의 융복합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임을 인식하여, 지식재산 선점을 위해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원천·표준특허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1].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신흥국들도 이에 동참하여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에 특허가 단순히 지식을 보호하거나 공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업들은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허는 연구개발의 특성 및 성과에 관련한 정량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혁신활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기술지식의 대응지표로서 경쟁자 분석, 기술 가치평가, R&D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2].

이로 인해 국내의 기업들은 특허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특허의 전략적 접근의 부재는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3].

최근 ICT 분야의 기업들은 취득한 특허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침해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기업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게 된다. 특허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인식과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특허분쟁 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세워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우위를 이어 가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허분쟁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치르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며 빠른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통한 혁신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특허출원이 많은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성장하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주요 업체 간 공격 및 방어 수단으로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업이 기술선진기업의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과 애플 간의 이른바 세기의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중심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삼성은 기술특허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9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등 ICT 업계에서 세계 선도적 기업으로 두 회사 간의 분쟁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분쟁이 지속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특허분쟁 시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특허분쟁의 예측 및 사전적 방지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 및 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4].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이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ICT 산업(삼성과 애플)들의 특허분쟁사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가지고 특허분쟁 시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제시와 기업들이 특허분쟁 발생 시에 취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의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아직까지 특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특허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특허분쟁

특허분쟁이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분쟁이며 특허 규모가 큰 특허분쟁은 특허전쟁(Patent war)이라고 한다. 1970년대까지도 특허를 전략과 연계한 경영자들은 없었으며, 만약 특허가 필요하면 크로스 라이선싱으로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미국의 경우, 독립시대의 친특허정책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반특허적 분위기로 나타나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대공황 이후 지속된 반특허적 분위기는 소송을 제기해도 특허침해 소송 중 단지 30%정도만이 특허권자가 승소할 정도로 특허무효 가능성이 높았다. 특허에 대한 이러한 방관적, 소극적 인식이 공격적, 전략적 접근으로 바뀐 것은 미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특허분쟁은 1985년 대통령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미국 경제의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용어가 통일)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6].

2.2 특허분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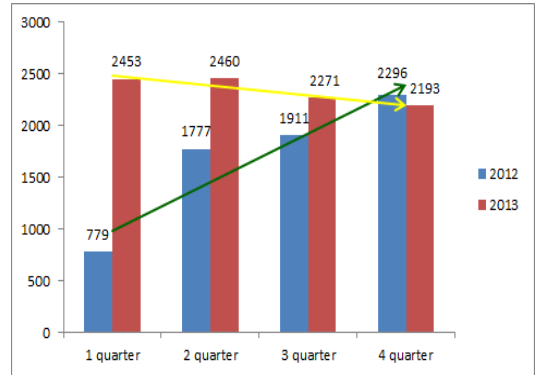
특허분쟁의 원인은 특허에 대한 생각의 관점 변화, 특허권 보호강화가 역설적으로 특허분쟁을 유발, 라이선스 계약상의 협상 결렬, 맞소송 유발 및 소송의 복잡화 등을 들 수 있다[7].

2.3 특허분쟁 특징

특허분쟁의 특징은 언어로 표현된 관념적 권리에 관한 다툼, 특허 침해의 용이성, 특허성 판단 및 침해여부 판단의 전문성, 손해 배상액의 고액화, 분쟁의 국제화, 기업 특유의 전략적 판단, 특허피물 등을 들 수 있다[7].

2.4 특허분쟁 현황

최근 특허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특허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시계열적 분쟁 현황에서 2012년도 대비 2013년 특허분쟁 현황은 39% 증가한 9,377건을 보였으나, 2012년 특허분쟁의 경우 분기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013년 특허분쟁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Fig. 1] Patent Dispute(2012-2013)[8]

2.5 특허분쟁에 대한 선행 연구

특허 및 특허분쟁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특허소송이 법적 쟁송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특허를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Lanjouw and Schankerman(2001)은 특허소송에서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 개인의 특허보다 기업의 특허가 특허분쟁에 더 연루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기술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9]. Lemer(1995)는 기업의 특허 출원전략에 따라 특허분쟁에 연루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10].

송하성(2000)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고 특허분쟁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특허분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11]. 김유진(2010)은 특허침해 소송이 기업의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나, 특허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12].

한 맞소송,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선싱 등의 전략이 있다[6, 17]. 이외에도 특허분쟁 발생시의 대응전략으로 비침해 전략, 무효전략, 회피설계 전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특허분쟁시의 대응방안으로 맞소송, 무효화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크로스 라이선싱, 소송에 합의 등 5개 방안을 도출하였다.

4.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

4.1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지

4.1.1 조사의 필요성

특허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허 침해를 당하거나 소송을 맡게 되면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특허분쟁의 대비를 하게 된다. 특허분쟁은 국경을 넘어선 특허분쟁 또한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거액의 손해 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허를 조사하고 현업에서 일하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4.1.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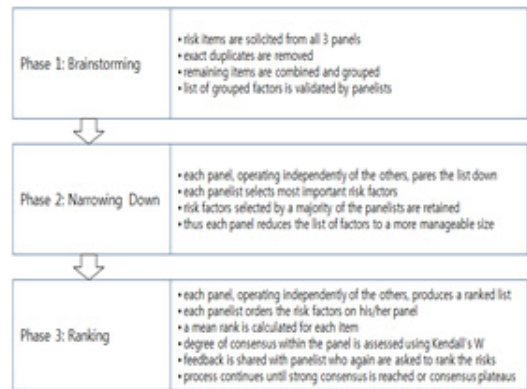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위한 델파이 분석과정은 Schmidt et al.(2001)의 연구에서 행해진 바와 같이 [Fig. 3]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행해졌다[19].

첫 번째는 브레인 스토밍 단계로 패널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시행 되어졌다. 각 패널들이 제출한 항목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전반적으로 간결한 항목으로 만들어 두 번째 단계의 설문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리스트의 항목을 줄이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통합리스트를 각 패널들에게 다시 보내지고 각 패널들은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최소 5개에서 10개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빈도를 가지는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리스트를 만들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요인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각 패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리스트의 항목에 대해 중요도 순

으로 매기게 된다. 각 패널들에게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으며, 매겨진 리스트를 받아 평균 순위에 따라 중요도에 따른 리스트를 도출하였다[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켄달의 일치계수를 사용하여 패널 사이의 의견의 일치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SPSS 12.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분석 방법은 평균 순위와 의견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켄달의 일치계수이다.



[Fig. 3] Description of Delphi Survey Process Used in this Study[19]

4.2 조사 설계

4.2.1 조사 대상 및 특성

현재 국내 특허 선형 기술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 정보원과 해당 국제 특허 사무소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국내 기업의 특허담당실무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를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허가치평가전문가 2명, 변리사 2명, 교수 1명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 분쟁시 대응방안은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분쟁원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요인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특허분쟁 현황, 몸소

체득하고 느끼는 현실을 듣고 혹은 특허분쟁 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특허정보원) 3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하였고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4.2.2 조사 방법 및 기간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개별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직접 인터뷰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20일까지 실시하였다.

4.3 인터뷰 조사 결과

A는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응방안은 크로스 라이선싱이라고 응답하였다. 크로스 라이선싱은 다른 대응방안인 맞소송, 로열티, 무효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요비용이 적으며, 대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히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 등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허분쟁의 당사자들 모두 크로스 라이선싱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특허무효화소송,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맞소송 순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B는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응방안으로 특허 맞소송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허분쟁 시 대응 방안에서 맞소송, 특허 무효화 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크로스 라이선싱, 로열티 합의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꺼내 보지 않고 소송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맞소송을 제기하여 대응을 전략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C는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응방안은 특허 무효화 소송으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무효화 소송을 하면 70% 이상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고 무효 확인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 채심사 신청 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크로스 라이선싱,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맞소송 순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4.4 설문 조사 결과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선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시 대응 방안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는 특허 무효화 소송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서 2011년에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삼성은 특허분쟁에서 애플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었다.

<Table 1> Result of Patent Litigation

	AVE	VAR	S..D.	Rank
counter-suit	4.4	3.48	1.86	3
patent invalidation suit	2	0.29	0.53	1
solidarity dispute patent	4.6	0.90	0.95	4
Cross-Licensing	4.2	1.33	1.15	2
Loyalty	5.8	1.14	1.07	5

크로스 라이선싱은 2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안정기에 취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 바로 크로스 라이선싱이다. 특허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들 간에는 일차적으로는 소송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약 200만 달러)이 소요가 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크로스 라이선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 맞소송은 3위로 나타났다. 특허무효화 소송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응 방안이 바로 맞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맞소송의 경우는 특허전담팀을 비롯한 충분한 인력(특허 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금력도 충분히 갖춘 대기업들이 취하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타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소송은 4위로 나타났다.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

치 않게 들게 되기 때문에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선호를 방식중의 하나이다.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열티) 합의는 5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받게 되면,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상대기업에게 라이선스 권한을 취득하고 로열티를 납부한다. 대부분 원천기술이 부족하거나,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취하는 전략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순위가 낮게 나왔다고 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의 5개 요인 중에서 전문가들과 실무 담당자들은 어느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4.5 켄달의 일치계수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전체 순위가 과연 얼마만큼 패널들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켄달의 일치계수 W를 사용하였다. 이는 순위에 대한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midt의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앞의 표에 일치계수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다[19].

본 연구 결과에 있어서 켄달의 일치계수 W는 0.37로 나타났으며 결과 순위에 있어서 패널들의 의견은 약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nterpretation of Kendall's W

W	Interpretation	Confidence in Ranks
0.1	Very weak agreement	None
0.3	Weak agreement	Low
0.5	Moderate agreement	Fair
0.7	Strong agreement	High
0.9	Unusually strong agreement	Very high

5. 결론

정보혁명이 진행됨으로써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임을 인식하여, 지식재산 선점을 위해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ICT 분야의 기업들은 취득한 특허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기업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게 된다. 특허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이 특허분쟁 발생시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들이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선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3인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싱과 맞소송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특허분쟁시의 전반적인 사항, 기업의 상태, 원천기술 보유여부, 분쟁국가, 소송의 강도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다양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특허 무효화 소송이 1위로 나타났다. 특허 무효화 소송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을 때 특허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법적인 관점에서만 특허분쟁에 대해 다루었으며,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특허분쟁요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 분쟁요인을 델파이기법을 통해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을 전문가(변리사, 특허정보원)와 기업의 특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 분쟁사례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전 산업 분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 응답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확대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REFERENCES

[1] KIPO, Intellectual Property White Paper, 2012.
 [2] Ernst, H, Patent Information for Strategic Technology Management, in: World Patent Information, 25(3), pp. 233-242, 2003.
 [3] Bae Sunf Ju, Draw the Patent seems to map a Strategy. DBR 135, ISSUE 2, pp. 91-97, 2013.
 [4] Choi Ji Sun,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in Global IP Lawsuits: based on the Samsung vs. Apple litigation in the U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1(2), pp. 319-354, 2013.
 [5] Fred Warshofsky, The Battle to Own the World's Technology, Wiley, 1994
 [6] S.T. Park, S.J. Lee, Y.K. Kim, Patent Dispute Management Strategy of the Enterprise through Case, KITA Conference, 2006.
 [7] Kim Dong Wook, Patent Disputes Trends and Causes and Countermeasures, Intellectual Property 21, KIPO, 96, pp. 208-266, 2006.
 [8] KIPO, <http://www.kipo.go.kr>
 [9] Lanjouw, Jean O. and Mark Schankerman, Characteristics of Patent Litigation: A Window on Competi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32(1), 129-151, 2001.
 [10] Lerner, Josh, Patenting in the Shadow of Competitor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8(2), pp. 463-95, 1995.
 [11] Song Sang Young, Kim Sa Hyuk, The New Competition Pattern and Response Strategies of Mobile Platforms, KISDI, 2013.
 [12] Kim Yu Jin, Firms Evolution in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after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13] Chae, Kyung Mi,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Affecting Patent Dispute: Focused on the

Electrical Field, SKKU, 2013.

[14] Ryu, Chang-Han, Prevention and Resolution Strategies on Patent Dispute Against NPEs : Focusing on Automotive Industry, Hanyang University, 2013.
 [15] Jeon, Keun Jeong, Survey Analysis on SAMSUNG vs. APPLE Patent Litigation: Focused on Samsung's Galaxy and Apple's iPhone patent litigation, Hongik University, 2013.
 [16] http://www.netcaucus.org/conference/2012/SOTN_2012_Smartphone_Litigation.pdf
 [17] S.T. Park, S.J. Lee, S.Y. Kim, Y.K. Kim, A Study on Corporate Strategy at the time of Patent Disputes,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Conference
 [18] Kim, Jeong Joong, A Strategy Patent Dispute, special report 02, DBR, pp. 70-75, 2013.
 [19] Schmidt, R. C., Lyytinen, K., Keil, M. & Cule, P, Identifying Software Project Risk: an International Delphi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7(4), pp. 5-36, 2001.
 [20] Y.K. Kim, S.T. Park, S.J. Lee, Selection of important factors for Patent Valuation using Delphi Method,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9(1), pp. 7-17, 2010.

김 솔 이(Kim, Sol Yi)



- 2014년 8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석사)
- 관심분야 : 특허경영, 특허전략, 특허가치평가 등
- E-Mail : solyi3308@naver.com

박 성 택(Park, Seong Taek)



- 2003년 8월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14년 6월 ~ 현재 : KASOM 빅데이터 전임교수

- 관심분야 : 특허가치평가 및 특허경영, 공급망관리 등
- E-Mail : solpherd@cbnu.ac.kr

김 영 기(Kim, Young Ki)



- 1978년 2월 : 서울대학교 학사
- 1986년 12월 : Univ. of Iowa MBA (경영학석사)
- 1992년 5월 : Univ. of Iowa(경영정보학 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보통신, 특허가치평가, 특허경영전략, 이러닝, 소프트웨어 방법론 등
- E-Mail : ykkim@cbnu.ac.kr